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후생연금기금 적립부족으로 70만명 연금감액

□ 일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후생연금기금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운용수익 악화 등으로 51개 연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약 3,700억엔의 적립부족이 발생함.

-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직장인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후생연금기금제도*의 약 600개 연기금 중에서 적립기준이 3년 연속 미달한 51개 연기금의 적립 부족액(2010년 3월말)은 약 3,700억엔임.
- 적립부족은 금융위기 이후 추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운용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임.

* 1966년부터 시행된 후생연금기금제도(DB형)는 동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능 축소와 퇴직연금제도의 전면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신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. 이에 따라 연기금 수는 피크였던 1999년 약 1,900개에서 약 600개로 급감

□ 향후 연기금의 적립금 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추가부담하거나 연기금의 해산 또는 가입자 연금의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- 향후 적립금 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51개 연기금에 가입된 기업은 가입자 1인당 평균 106만엔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기금이 해산 또는 파산될 수 있음.
- 해산·파산의 위기에 처할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노조의 동의절차를 통해 51개 연기금에 가입된 70만명의 급부액을 감액하거나 가입자에게 추가로 기여액을 부담시킬 가능성도 있음.
- 다만, 정부가 후생연금기금에 대해 지급책임이 있는 일부분에 대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보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.

□ 그러나, 51개 연기금중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연금기금에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부분의 적립부족 연기금은 가입자의 연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.

(아사히 2/28)